



전주대, 유학생 지역 농가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전주대(총장 박진배)는 지난달 28일 영농기를 맞아 일손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대의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친 25명의 중국, 베트남 미얀마 유학생들이 함께하여 고구마 순 심기, 고추 모종 심기 등을 통해 농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점심시간에는 농가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서 먹으며 한국에 대한 농촌 생활과 농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ZHONG YUE(중국, 인공지능학과)는 '밭에서 씨를 뿌려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부들의 정성과 땀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며, "이곳 어르신들이 외국 학생들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게 여기는 할머니가 생각나 더 열심히 돕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제교류원장 제혜금 교수(경영학과)는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나눔을 돕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며 훗날 고국으로 돌아간 한국에서 배운 봉사제도를 활용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박용철(69) 씨는 "반가운 비 소식이고 작물을 심기 위해 마음이 급했는데 유학생들이 찾아와 밭에 비닐을 덮고 작물을 심는데 도와줘 올해는 수월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해양경찰, 마실축제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가 해양 안전 문화 확산과 국민 친화적 교육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과 규제혁신의 하나로 부안 마실축제 '해양경찰 홍보 부스'와 마실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4년 만에 개최되는 부안 관내 최대 규모의 축제인 '마실축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맞춤형 대국민 홍보를 위한 '해양경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으로는 VR 장비를 이용해 화재 선박에서의 탈출을 간접 체험과 구명뗏목 활용 방법, 해양경찰 제복을 착용 구명조끼 빨리 입기 시험 페이스 스티커 부착, 해양경찰 모형 만들기, 응원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해양안전 의식을 홍보한다는 것.

또한, 5월 5일과 6일은 부안 행안면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청사를 개방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이 원하면 청사를 방문해 견학하고 해양경찰 임무 등에 대해 설명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1일 영진초등학교 학생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지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안군, 가정의 달 사랑의 선물 나눔 릴레이 이어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안군에 사랑의 선물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군은 2일 관내업체 3개소가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온정을 전달했다.

전달 물품은 (주)팜덕7 (대표 문순금) 130만원 상당의 훈제 오리와 진안사랑의열매봉사단(단장 오복덕) 성금 200만원, (유)미아프린은 성금 100만원이다.

(주)팜덕7은 "지역업체로 앞으로도 이웃과 온정을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안사랑의열매봉사단은 "지난 4월 17일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예정했던 나눔 행사 대신 진안군 내 저소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20만원씩 10가구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미아프린은 진안 지역 내 자활기업으로 2021년에 이어 올해도 100만원의 기부를 하며 "자활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준성 군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족한 사람들이 사이에서 소외계층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관내 업체에서 함께 해주신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후원 받은 물품과 후원금은 진안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촌재능나눔 지역단체 활동지원

남원시자본센터, 소방안전체험·생활공예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자본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일 인월중·교에서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체험과 생활공예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농촌재능나눔 지역단체 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 활성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눔 봉사단체를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교육과 문화증진을 위한 소방안전 체험교육 및 생활공예 프로그램,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동빨래방 운영을 진행 센터를 중심으로 가운누리가족봉사단, JB청년회,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학교부적소년지원센터, 남원시 재향군인협회,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봉사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이은주 남원시 시민소통실장은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의 재능을 농촌마을에 나눔으로써 농촌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자본센터, 'HAPPY RUN 엄마의 간식' 제과·제빵 봉사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손수 만든 간식을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본지원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일 제과·제빵 분야 재능기부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HAPPY RUN 엄마의 간식' 사업의 제과·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일플림봉사단(회장 임소형)과 행복나눔미봉사단(회장 김중환)은 총 840여개의 머핀과 쿠키 등을 만들어 30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센터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30회에 걸쳐 전주 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69개소, '엄마의 밥상지원' 지원 아동 340여명 등에 간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HAPPY RUN 엄마의 간식'은 제과·제빵 재능기부 봉사단인 일플림봉사단, 행복나눔미봉사단, △슈기봉사단(회장 임가현)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 이주여성봉사단 등 회원 60여명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슈기봉사단이 참여하면서 이진식 제과·제빵 전문강사의 전문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돼, 재능나



눔의 봉사활동영역이 보다 전문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소형 일플림봉사단 회장은 김중환 행복나눔미봉사단 회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간식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이천 사단법인 전주시자본지원센터 이사장은 "귀중한 시간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프랑스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 학생 등 20여명 전주방문

유럽국가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큰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을 배우러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프랑스 에밀리 뒤 샤텔레 고등학교의 학생 19명과 교감 등 프랑스 방문단이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천년 문화도시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일간 전주에 머물면서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해 한옥과 한식, 한복, 한지, 관소리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지닌 전주의 향취를 보고 느꼈다.

특히 K-POP 음악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음식, 언어 등 K-컬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전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프랑스의 2023년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하게 된 이들에게, 전주시는 전주의 홍보대사가 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학생들의 수학여행 등이 다시 시작돼 매우 기쁘다"며, "K-컬처가 세계적으로 붐인 가운데 전주가 바로 K-컬처의 발상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외에 홍보하고 브랜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부안경찰, 부안초등학교 스쿨존 합동캠페인 전개

부안경찰서에서는 2일 부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청, 부안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 교육과 함께 방아보행 3원칙(사다.보다.걸다) 홍보문구가 적혀있는 노트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박성수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삼삼동, 대신면 어르신에 삼계탕 대접

남원시 대신면 관계자는 도봉동의 삼삼동(대표 왕홍석)에서 지난 2일 대신면에 거주한 40명의 어르신들에게 한방누룽지 삼계탕을 대접했다고 전했다.

현재 왕홍석 대표는 "봉시옹"이라는 기부-나눔 봉사단체를 설립해 남원시 관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중증장애인 기관, 농어인협회,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기관 및 소외되기 쉬운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삼계탕과 반찬 나눔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운교마을의 김봉\*(88세) 어르신은 "뜻밖에도 맛있는 삼계탕을 먹으니 보양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절로 난다"며 기뻐했다.

한편 류창 대신면장은 "어르신들이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왕홍석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교육문화센터-도로공 전북본부, 협약 체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하 전정화센터)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전북영업센터, 전북휴게소장협의회와 도내 여성의 고용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영입시설(휴게소·주유소·영업소) 근무인력 수급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기업 및 기관에 필요한 인력 양성·발굴 및 채용지원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제도 적극 도입 및 실시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여 고용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 △상호 기관 및 운영사업에 대한 지역인 홍보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센터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관내 휴게소(26개소) 및 요금소(34개소) 등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여성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휴게소의 홍보전사대를 무료 제공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도내 여성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여성 취업을 돕고자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김현규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여성의 경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전정화 센터장은 "국가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여성의 고용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되는 계기"라며 "여성인력과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취업 연계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업무협약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그린이엔티, 김제시에 이웃돕기 300만원 성금 기탁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그린이엔티(주)(대표 안성국)가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라면 등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그린이엔티(주)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와 라면 등을 기탁한 바 있으며 안성국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위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따뜻한 정을 나누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어 용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조원태 용지면장은 "어려운 경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소중히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여 따뜻한 용지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부안군 재향군인회, 부산 UN기념공원 안보견학

부안군 재향군인회(회장 김동선)는 지난달 28일 2023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부안향군 회원, 임직원 여성회원 등 40명은 경주 대릉원, 부산 UN기념공원, 진주성 등을 찾았다.

특히 세계 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11개국 230여구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UN기념공원을 방문해 그날의 영웅들을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동선 회장은 "우리 향군이 안보 현장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